



‘선장’없는 토고 선수들 감독 교체 등으로 팀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토고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0일 방겐의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피스터 감독 전술 이어 가겠다”

### 토고 마웨나 감독대행 마지막 해법찾기 “아데바요르-쿠바자 투톱 한국전 상대”

“우리는 피스터 감독의 전술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선장이 떠난 외로운 ‘토고호’의 조타수 역할을 맡은 코조비 마웨나 감독대행이 11일(한국시간) 2006 독일 월드컵 축구대회 G조 조별예선 첫 상대인 한국전을 이틀 앞두고 내던지 첫 마디다.  
말 그대로 오토 피스터 감독이 일찍이 팀컬러와 전술을 그대로 계승해 사상 첫 월드컵 무대 도전을 앞두고 심하게 영긴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  
갑작스런 사령탑의 사임으로 지도

공백에 빠진 만큼 마웨나 감독대행은 피스터 감독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않고 기존의 ‘베스트 11’ 라인을 그대로 이어 나가면서 전술변화보다는 선수들의 응집력을 키우는 데 남은 시간을 활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웨나 감독대행은 지난 7일 FC방겐과 치른 최종 평가전에 내세웠던 아데바요르와 모하메드 압델 카데르 쿠바자의 투톱을 중심으로 한 4-4-2 전술을 내세워 한국을 상대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평가전이 끝난 뒤 피스터 전 감독들은 “FC방겐전에 나섰던 선수들

이 월드컵 주전멤버”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토고는 아데바요르와 모하메드 압델 카데르 쿠바자를 투톱을 앞세우고 좌우 측면 미드필더에 세리프 투레 마망과 토마스 도세비를 출전시킨 뒤 중앙 미드필더에 알렉시스 로마오와 쿠아미 아그보를 포진시켰다.  
포백 수비 라인엔 왼쪽부터 튀도비크 아세모야사, 다르 니봄베, 장폴 아발로, 마사메소 창가이가 지켰다. 골문은 변함없이 주전 골키퍼 코시 아가사의 몫.  
여기서 변화를 줄 수 있는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인 것이다. 주전급인 공격형 미드필더 아오 세나야와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아오 아지아위의 선발출전 여부를 놓고 마웨나 감독대행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 “토고 새 사령탑 세퍼가 말을 것”

로이터 통신 보도



리트 세퍼 전 카메룬 감독(사진)이 맡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2002 한·일 월드컵 때 카메룬 지휘봉을 잡았던 세퍼 전 감독은 이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나는 토고 선수단 집행부와 선수들과 만나기 위해 캠프로 갈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전날 이야기를 했다.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선수들이 훈련한다면 (감독직을)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수들의 수당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게 조건이다”라고 덧붙였다. 토고는 앞서 사퇴한 오토 피스터 전 감독 후임으로 코조비 마웨나 코치를 새 감독으로 승격시키고 13일 한국과 조별리그 1차전을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피스터 “감독 임무 박탈당해 사퇴”

한국과의 2006 독일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1차전을 사흘 앞두고 급작스럽게 사퇴한 토고 축구 국가대표팀 오토 피스터 감독이 사퇴 이유에 대해 “감독으로서의 임무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1일 스위스 종합일간지 ‘24시간’에 따르면 피스터 감독은 “며칠씩이나 팀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주체가 나에게서 감독으로서의 임무와 지휘권을 빼앗았다는 것이 내 판단”이라고 말했다.

피스터 감독은 이어 “이러한 상황을 만든 ‘주범’은 토고축구협회(FTF)”라면서 “현 상황에서 내가 13일 열리는 한국전에 벤치에 앉아있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강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피스터 감독의 사퇴 직후 FTF는 코조비 마웨나 대표팀 코치를 감독대행에 임명했으며 피스터 감독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佛 도메네크 “고부발탁... 활용가치 최고”

2006 독일월드컵에 출전하는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레몽 도메네크 감독이 정강이 복잡결로 낙마한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스트라이커 지브리 시세(25·리버풀) 대신 시드니 고부(27·리옹)를 선택한 것은 고부의 활용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1일 스위스 종합일간지 ‘24시간’에 따르면 도메네크 감독은 10일 독일 하멜른에서 진행된 프랑스 대표팀 훈련이 끝난 뒤 현지 취재진과 만나 “고부는 어떤 상황, 어떤 선수와도 교체될 수 있을 만큼 다방면에 훌륭한 자질을 지닌 선수”라며 “이 점이 나를 매료시켰다”고 말했다.  
발탁 배경에 대해 도메네크 감독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다”면서 “중국의 평가전이 열린 다음날 아침 4시간 가량 코칭스태프 회의와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부의 발탁 사실이 발표된 직후 유력한 시세 대체선수로 거론되던 니콜라 아벨카(27·페네르바체)와 튀도비치 지울리(30·바르셀로나)는 도메네크 감독의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도메네크 감독이 왜 나를 택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다른 누구 대신 월드컵에 출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 “프랑스 우승 못한다”

佛 축구팬 66% “결승진출 못할 것”  
프랑스 축구팬의 다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자국팀의 우승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11일자 르 푸르날 뒤 디망슈에 따르면 1003명에게 물어본 결과 66%가 자국팀이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또 69%가 프랑크 리베리가 13일 열리는 스위스와의 첫 경기에 선발 출전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컵을 앞둔 3차례 평가전에서 두각을 나타낸 리베리는 지넨 지단의 뒤를 이을 재목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번 대회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다.



독일 스트라이커 클로제

## 빅스타들 초반부터 두각

### 독일 클로제 개막전 2골 베컴·크레스포 등 이름값

세계 최고들이 모인 월드컵에서도 역시 빅스타들은 초반부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일(이하 한국시간)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에서 두 무려 4골이 스타들의 발끝에서 터져 나왔다. 분데스리가 특급 미로슬라프 클로제(28·베르더 브레멘)는 잘 알려진 대로 타점이 높고 정확한 헤딩과 빠르고 정확한 마무리 능력을 선보이며 2골을 넣었다.  
아르헨티나는 11일 코르디부아르와 1차전에서 프리메라리가와 프리메라리가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스트라이커

들의 발로 승점 3점을 쟁했다. 2000-2001시즌 세리에A 득점왕이자 2002년 월드컵 남미예선 득점왕 에르난 크레스포(31·첼시)는 선제골로 기대에 부응했다. 열아홉살에 아르헨티나 리그 득점왕에 오르고 2001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득점왕과 최우수선수 타이틀을 들어쥘었던 하비에르 사비올라(25·세비아)는 쇄기골을 박았다.  
잉글랜드와 파라과이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는 잉글랜드 주장 데이비드 베컴(31·레알 마드리드)이 완숙기에 접어든 오른발을 자랑했다. 베컴은 1-0으로 신승한 파라과이전에서 상대의 자책골을 끌어내는 날카로운 프리킥을 차올렸고 위협적인 중거리슛을 선보이기도 했다. /최재호기자 lion@



잉글랜드 주장 베컴

7월 9일 <b>공무원</b> 남경철직 여영길직	공인 <b>증개사</b>
<p>행정직, 세무직, 병역직, 검정직 소방직, 교정직, 학사직, 경찰직</p> <p>11월 11일, 10/11, 10/11, 10/11</p> <p>11월 11일, 10/11, 10/11, 10/11</p>	<p>11월 11일, 10/11, 10/11, 10/11</p> <p>11월 11일, 10/11, 10/11, 10/11</p>
<p>개강 6월 26일</p> <p><b>전남고시학원</b></p> <p>전남고시학원 전남고시학원 111-1111-1111</p>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주)태양주방개발 | TEL 062-262-0606 | 262-0450

**실내정원**

111-1111-1111

**마카**

111-1111-1111